

김옥균의 제1차 일본 방문 활동과 그 목적*

김흥수**

〈차 례〉

1. 머리말
2. 김옥균 일행의 일본 시찰 활동
3. 방일 목적
4. 임오군란과 김옥균
5. 맺음말

[국문초록]

1882년 봄 김옥균은 서광범, 강위, 우범선, 김동억 등 개화당의 멤버를 대동하고 일본을 비밀리에 방문한다. 지금까지 이 일본 방문의 목적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당시 일본 신문의 보도에 근거하여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걸로 막연히 추정하는 정도였다.

『花房義質關係文書』에 김옥균의 일본 방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김옥균은 우범선과 김동억을 도쿄로 보내 하나부사 요시모토 공사와 필담 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하나부사에게 일본군 3, 4천 명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일본군의 위세로 권력을 장악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였다. 이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보증을 요청하자 김옥균은 비밀리에 일시 귀국길에 오른다.

뜻밖에도 귀국 도중에 임오군란이 발발하고 김옥균은 시모노세키에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임오군란으로 일본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자 김옥균의 차병(借兵) 요청은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곧바로 대규모의 청군이 파견되자 일본군의 위세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김옥균의 의도는 무산되었다.

[주제어] 김옥균, 서광범, 강위, 우범선, 하나부사 요시모토, 요시다 기요나리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양과 부교수

1. 머리말

김옥균 등의 개화당은 1879~1880년 李東仁을 일본에 밀파하여 일본과 영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고, 1881년 초에도 李獻愚를 일본에 밀파하여 인천 개항을 압박하기 위해 군대를 동반한 大使節의 파견을 요청했다. 외세의 충격으로 반 개화파를 일소하고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주도로 개화 정책을 펼치려는 의도였다.¹⁾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불발로 끝나자 1882년 봄에 김옥균은 서광범과 함께 직접 일본을 방문한다. 김옥균은 갑신정변 전에 모두 3차례 방일하는데 이것이 그의 최초 방문이다.

김옥균의 제1차 방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쿡(Harold F. Cook)이 선구적으로 상세히 다룬 적이 있다.²⁾ 그러나 당대의 자료가 아니라 후대의 회고록에 근거하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김옥균의 첫 만남과 개화사상에 끼친 후쿠자와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³⁾ 재일 사학자인 금병동은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을 섭렵하여 김옥균의 방일 일정을 상세히 복원하는 등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⁴⁾ 최근에는 김종학이 개화당의 맥락에서 김옥균의 제1차 방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⁵⁾

이들 연구는 在朝鮮釜山港商法會議所 발행의 일본 신문인 『朝鮮新報』 기사를 근거로 김옥균의 방일 목적이 일본의 국정 시찰 외에 국채모집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그러나 국채모집이 개화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라거나 정변을 위한 자금이라고 막연히 추정할 뿐 무엇을 위한 국채모집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도 임오군란 전에 김옥균이 일행과 떨어져 단신으로 먼저 귀국길에 오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이 주제와 관련하여 김옥균을 수행한 姜瑋에 관한 연구도 축적되었지

1) 김홍수, 「개화당의 비밀을 밝혀줄 와타나베 고키(渡邊洪基) 편지」, 『역사의窓』 44호, 2017.
 2) Harold F. Cook, *Korea's 1884 Incident-Its Background and Kim Ok-kyun's Elusive Dream*, Royal Asiatic Society, 1972, pp.39~49.
 3) 김옥균 등 개화당의 개화사상은 후쿠자와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中西聞見錄』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김홍수, 「박규수의 대일수교론과 개화사상」, 『환재 박규수 연구』, 학자원, 2018).
 4) 琴秉洞, 『金玉均と日本：その滞日の軌跡』, 綠蔭書房, 1991.
 5) 김종학,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2017, 123~151쪽.

만,⁶⁾ 방일 목적을 규명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참고가 되지 않은 『花房義質關係文書』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무엇보다 베일에 싸인 김옥균의 방일 목적을 규명하고자 한다.

2. 김옥균 일행의 일본 시찰 활동

1882년 봄 김옥균은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1880년 제2차 수신사 파견 때 김옥균은 방일을 원했으나 과거시험 관리 소홀로 유배 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강위를 천거하여 김홍집 수신사를 따르도록 했다.⁷⁾ 1881년 이른바 조사시찰단 파견 때는 김옥균도 內命을 받았으나⁸⁾ 개화당에서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한 이현우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천안에 있는 생부 김병태(金炳台)의 병구완으로⁹⁾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남은 김옥균은 신사 척사운동의 이만손·강진규 추국 때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활동하고¹⁰⁾, 이후 이재선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척사운동이 잠잠해지자 비로소 방일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 최초의 방일은 공공연한 방문이 아니라 비밀 방문이었다.

비밀 방문이었지만 김옥균이 부산에 도착하자 그의 방일 소식은 부산의 일본 거류민 신문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다.

6) 대표적 연구로는 朱昇澤, 『한문학과 근대문학』(태학사, 2009); 襄基剗, 『秋琴 姜璋의 海外紀行詩研究』(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현주, 「1880년대 초반 姜璋의 日·淸 여행과 조선 정부의 개화정책」(『漢文學報』 제43집, 2020)을 들 수 있다.

7) “頃在庚辰夏金侍郎道園宏集大人 以修信使赴日本侍讀大人力薦 不肖辟充書記 以行得至日京”(姜璋, 『續東游艸』, 『姜璋全集』 하권, 아세아문화사, 1978).

8) 1881년 3월 8일 近藤眞鋤 영사가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시찰사가 2월 23일경 암행어사 명의로 서울에서 출발했고 일본 도항의 내명을 받은 김옥균은 이들이 일본에 도착한 소식을 들은 후에 발족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花房義質關係文書』 110-28).

9) 『승정원일기』 1880년 12월 30일.

10) 1881년 4월 22일(5월 19일)부터 추국이 철폐된 5월 18일(6월 14일)까지 김옥균은 이견창 등과 더불어 문사낭청으로 활동했다(서종태 역주, 「신사년 죄인 이만손·강진규 등 국안」, 『추안급국안』 87, 흐름, 2014).

조선 개화당의 유명한 김옥균 씨는 이번에 왕명을 받들어 우리나라에 도항할 준비로 저번에 경성에서 내려와 지금은 옛 왜관의 旅店에 머물고 있다. 그 왕명이 무엇인지는 약간 들은 것이 있지만, 상세한 내용을 얻은 다음 쓰겠다. 또 김옥균 일행은 수십 인이라고 하며 머지않아 경기에서 육로나 혹은 우리 군함 세이키호(淸輝號)를 타고 온다는 취지이다.

위 일행의 여비는 대체로 2만 엔쯤 예상되어 어느 상회에 빌리기를 의뢰했는데, 그 상회는 이전부터 빌려준 돈이 지금 많이 연체되어 이번은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¹¹⁾

왕명으로 부산에 내려온 김옥균이 일행을 기다리면서 여비 마련을 위해 상회와 교섭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는 내용이다. 당시 세이키호는 서울의 일본공사관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에 정박했으므로 위와 같은 언급이 있었지만, 세이키호는 3월 16일에 이미 부산에 도착하여 일행이 군함을 타고 올 수는 없었다.¹²⁾ 그리고 김옥균이 여비 대여 교섭을 한 상회는 協同商會를 말한다. 부산에 지점을 둔 오사카의 교도상회는 이전의 수신사나 조사시찰단 파견 때 여비나 무기 구매 등의 물품 조달을 전담하였다.¹³⁾ 김옥균도 여비 등으로 교도상회로부터 8, 9천 엔을 빌렸다.¹⁴⁾

이 보도에 대해 김옥균은 아래와 같이 오보라고 하면서 부산의 일본 영사관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
- 11) “朝鮮開化黨の有名なる金玉均氏は、今般王名を奉じ我國に渡航する仕度にて過日京城にて下りて、今現に舊館の旅店に止宿し居るが、其王命の如何は聊か聞きし事あれども、尙ほ詳細の事を得て誌すことあるべし。又同氏の一行は數十人あるよしにて、不日京圻より陸路或は我軍艦に乗組來るおもむきなり。右一行の旅費は凡そ二萬圓程の見込にて、或商會へ借入れの事を依頼せし處、其商會は前々よりの貸金あつて今に多分滯り居れば、今度は其依頼に應ぜざるやの話しなり”(韓國古書同友會 편, 『朝鮮新報』 제 6호, 1882년 3월 15일). 구두점은 필자가 부가, 이하 동일.
- 12) 1882년 2월 26일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세이키호는 경성공사관에 별일이 없음을 확인하고 3월 14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앞바다에서 출항하여 16일 낮 12시 40분 부산에 도착했다(『軍務局へ通牒淸輝艦朝鮮へ向け長崎出帆』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11082271500).
- 13) 協同商會는 조슈번 출신 사족이 조선 무역을 목표로 만든 회사이다. 協同商會에 대해서는 김광웅, 「근대 일본의 協同商會와 朝鮮貿易」(『동아시아역사연구』 제7·8집, 2000) 참조.
- 14) JACAR Ref.B03030178600 27/41.

김옥균 씨는 이달 17일 출범한 치토세마루(千年丸)로 일본에 도항했다. 前號 雜報 중에 同氏の 일행 몇 명이 이어서 경성에서 온다고 운운한 것, 또 어떤 상회에 여비 2만 엔 차입을 의뢰했다고 운운한 얘기를 실었는데, 동씨는 위 두 가지 일이 없다고 하면서 취소를 우리 영사관에 요청했다. 영사관은 편집자에게 위 2항을 취소하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취소할 것이다. 각설하고 동씨의 이번 일본행의 목적은 단지 우리 현재 사정의 시찰뿐만 아니라 미리 왕명을 받들어 국채를 모집하는 예비상담을 관계 顯官에게 도모하는 것이라 한다. 어쨌든 동씨는 매우 재기발랄한 사람으로 당국 개화당의 영수이다.¹⁵⁾

김옥균의 정정 보도 요청에 대해 『朝鮮新報』는 한술 더 떠 김옥균의 방일 목적이 시찰과 더불어 왕명으로 국채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전부터 김옥균과 민영익이 외채 50만 엔 모집을 위해 방일한다는 소문이 있어 『朝鮮新報』가 이렇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1881년 11월 13일 곤도 마스키(近藤眞鋤) 부산 영사는 하나부사 변리공사에게 “아마 민·김이 함께 도항함은 필연일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용무는 첫째 일본과 더욱 懇親을 꾀게 하려는 뜻, 둘째 일본 정부에 의뢰해서 돈을 빌리려는 뜻(대체로 50만 엔)”¹⁶⁾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었다. 민영익도 김옥균과 동행하기로 했지만, 누이의 왕세자빈 간택을 앞두고 있고¹⁷⁾ 더구나 친모의 병환이 위독하여 방 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¹⁸⁾ 『朝鮮新報』의 이 기사가 교토, 오사카, 도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轉載되어 확산하자 김옥균은 귀국 후 반대당이 이를

15) “金玉均氏は本月十七日出帆の千年丸より日本へ渡航せしが、前號に於て雜報中に、同氏の一行數人追て京城より來る云々、又或商會へ旅費二萬圓を借り入れの依頼せし云々の話しを載せたる處、同氏は右二項の事情無之とて取消を我領事館へ申來り、領事館よりは編者に右の二項取消して遣れとの五口達に依り、全く事實のこれなき事ならば取消べし。却說、同氏今回日本行の目的は、唯我今日の事情視察のためのみならず、兼て王命を奉じ國債を募る下地相談を其筋の顯官方に謀るとの事なるよし、何にせよ同氏は餘程才氣逞しき人にして、當國開化黨の領袖たり”(『朝鮮新報』 제7호, 1882년 3월 25일).

16) “多分閉金とも渡航するは必定の義と被察候。尤も其用向は第一に日本と益懇親を深くする意、第二日本政府に依頼し金借んとする意(凡五十万円)”(『花房義質關係文書』 MF 110-45).

17) 민영익의 친누이인 민태호의 딸은 3월 15일 간택되었다. 『승정원일기』 1882년 1월 26일.

18) 이광린은 친모의 상으로 민영익이 동행하지 못했다고 했으나(『開化黨研究』, 一潮閣, 1973, 27쪽, 51쪽), 민영익 생모의 상은 이후인 1882년 3월 29일(5월 16일)의 일이었다.

구실로 탄압할 걸 우려하여 이번의 일본행은 일본의 내정을 시찰하여 향후 隣交와 내치에 참고하기 위함이라고¹⁹⁾ 본래의 목적을 감추는 데 애썼다.

김옥균은 3월 15일 부산 일본 영사관이 개최한 송별연에 참석²⁰⁾ 후 뒤따라온 강위, 邊巖, 禹子重, 金東櫨과 함께²¹⁾ 17일 부산을 출발한 치토세마루를 타고 3월 19일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이후 3월 22일에 나가사키의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를 견학하고 23일에는 재판소를 견학했다.²²⁾ 3월 24일에는 나가사키 주재 각국 영사를 방문했다.²³⁾ 3월 25일 동행한 禹鼎²⁴⁾과 김동억은 오전 0시 30분 출발의 우편선 히로시마마루(廣島丸)를 타고 도쿄로 향했다.²⁵⁾ 후술하듯이 하나부사 공사와 만나 일본군의 借兵을 협상하기 위해서였다.

3월 27일에는 김옥균의 요청에 따라 오우라(大浦)의 전신 분국을 방문했다. 전신 시설을 견학한 김옥균은 그 미묘함에 감탄하고 조선에도 빨리 가설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한다. 이어서 옆에 있는 덴마크 전신 회사도 방문하여 상세히 견학하고 전신부호 등에 대해 자세하게 묻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²⁶⁾ 3월 26일 청국 영사 余璣의 초대연에 응하고,²⁷⁾ 3월 29일에는 나가사키 縣令 우쓰미 다다카쓰(內海忠勝)가 우마마치(馬町) 지유테이(自由亭)에서 개최한 초대연에 응했다. 이 자리엔 청국 영사, 縣會 의장 시바산쿠로(志波三九郎) 등이 참석했는데 김옥균과 강위는 옛날 통신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시를 짓기도 하였다.²⁸⁾

그 외 김옥균은 사쿠라유(櫻湯)에서 목욕할 때 알게 된 다루이 도키치(樽

19) 『日本立憲政黨新聞』 1882년 4월 8일; 『東京日日新聞』 1882년 4월 13일. 본고에서 인용하는 일본 신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琴乘洞文庫 소재 김옥균 관계 자료』에 의거했다.

20) 『京都新報』 1882년 3월 21일; 『朝日新聞』 1882년 3월 25일.

21) 姜璋, 『續東游艸』, 『姜璋全集』 下, 亞細亞文化社, 1978.

22) 『西海新聞』 1882년 3월 23일.

23) 『西海新聞』 1882년 3월 29일.

24) 강위의 '속동유초'에 나오는 우지중을 말한다. 우지중은 일본에 도착한 즉시 우정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뒤에서 논증하듯이 우정은 우범선이고 지중은 우범선의 字이다.

25) 『西海新聞』 1882년 3월 26일.

26) 『西海新聞』 1882년 4월 2일.

27) 『西海新聞』 1882년 3월 26일.

28) 『西海新聞』 1882년 3월 31일.

井藤吉)가 조선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귀고, 목욕탕의 주인이 소중하게 간직한 岳飛의 書幅을 보이니 表具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표구 비용을 치러 주거나 이 서폭의 對幅으로 시 한 수를 써주었다.²⁹⁾ 청국인 孫子希가 김옥균을 찾아왔을 때는 필담으로 조선의 정세와 만국공법을 논하기도 하였다.³⁰⁾ 이처럼 김옥균은 박영효가 “김옥균의 長處는 交遊요, 교유가 참 능하오”³¹⁾라고 했듯이 나가사키에서 그 사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4월 21일 김옥균은 서광범이 도착하자 함께 쓰루가마루(敦賀丸) 편으로 나가사키를 출발 23일 고베(神戸)에 도착했다.³²⁾ 이들이 이 무렵에 고베로 간 것은 하나부사 공사가 4월 22일 도쿄를 출발, 고베에서 군함 반조함(磐城艦)을 타고 부산과 인천을 경유해서 서울에 귀임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³³⁾ 그런데 하나부사의 출발은 예정보다 늦어져 4월 26일 도쿄를 출발하게 된다.³⁴⁾ 4월 20일 오전 7시 5분 고베에 도착한 반조함은 외무성의 요청으로 하나부사 일행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을 태우고 5월 1일 오전 7시 바칸(馬關,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³⁵⁾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김옥균과 서광범은 4월 28, 29일경 고베에서 하나부사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하나부사의 고베 도착 일정에 맞추어 김옥균 등이 그를 만난 것은, 후술하듯이 일본군의 차병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김옥균 일행은 고베의 영국영사관도 방문하고 아리마(有馬) 온천장

29) 『西海新聞』 1882년 3월 26일, 『朝日新聞』 1882년 4월 5일.

30) 『西海新聞』 1882년 4월 6일.

31) 李光洙, 「甲申政變回顧談, 朴泳孝氏를 만난 이야기」, 『동광』 제19호, 1931. 3, 15쪽.

32) 『西海新聞』 1882년 4월 23일. 이 신문에선 20일 출항의 敦賀丸 편으로 東上했다고 했으나, 하나부사는 “김옥균 공이 21일 나가사키를 출발, 어제 고베에 도착했다. 저는 26일 이곳(도쿄)을 출발해서 고베에서 만나러 한다(金玉均公 以廿一日發長崎 昨日達神戸 僕以廿六日將發此地 期相見于神戸)”(『花房義實關係文書』 408-7)라고 하였으므로 이 기록을 따랐다.

33) 1882년 4월 17일 외무대보 上野景範 → 원산 총영사 前田獻吉 · 부산 영사 사무대리 宮本熙, 「花房弁理公使歸任ノ件 明治十五年」 JACAR Ref. B16080153100.

34) 이노우에 외무경은 4월 18일 하나부사를 일본 인민 무역규칙 개정 및 세칙 創定 답관 전권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내각에 요청했는데 4월 25일에 결재가 이루어지고, 4월 26일에 조선에 귀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日本外交文書』 제15권 문서번호 108). 하나부사와 近藤眞鋤 영사, 水野 보병 대위 등 17명은 26일 오후 6시 요코하마 출발의 玄海丸으로 고베를 향해 출발했다(『朝野新聞』 · 『東京日日新聞』 1882년 4월 27일).

35) JACAR Ref. C09103502400 및 C11082282000.

에서 휴양한 후 5월 8일 오사카에 도착하여 오사카부지사(大阪府知事) 다테 노 고조(建野郷三)를 예방했다.³⁶⁾ 이날 오전에는 조폐국을 시찰하고 저녁에 교토상회가 초대한 만찬에 참석했다.³⁷⁾ 당시의 일행은 김옥균(32세), 서광범(24), 강위(63), 유길준(27), 유혁로(30), 변수(20), 諡杲(29), 昌植(31), 卓挺植(32)의 9명이라고 보도되었다.³⁸⁾ 이중 유길준은 게이오 기주쿠(慶應義塾) 유학생이고, 유혁로는 무관으로 서광범과 함께 온 인물이고, 의고의 본명은 李允果로 뒤에 김옥균이 개척사로 파견될 때나 오가사와라로 유배될 때 從者가 된 인물이고, 창식은 권창식³⁹⁾인 것으로 보인다. 무불 탁정식은 1880년부터 일본을 오가면서 이동인과 함께 개화당의 연락책을 맡고 영국인 사토우(E. M. Satow)와도 친분을 쌓은 인물이다. 김옥균 일행이 부산에서 나가사키로 올 때부터 통역과 안내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⁴⁰⁾

5월 11일 기차 편으로 교토에 도착한 김옥균 일행은 12일에 박람회와 맹아원을 관람하고 13일에는 교토부청을 방문하고 金閣寺를 관람했다. 교토에 있을 때 김옥균은 조선에서 양잠을 성대하게 일으킬 목적으로 변수에게 양잠을 배우게 하였다.⁴¹⁾ 교토 시찰을 마친 일행은 5월 23일 다시 고베로 돌아왔다.⁴²⁾ 김옥균, 서광범, 강위, 유길준의 4명은 고베에서 다카사고마루(高砂

36) 『朝日新聞』 1882년 5월 9일, 『朝日新聞』 1882년 5월 10일. 아사히신문은 당시 오사카에서 발행되었다.

37) 『朝日新聞』 1882년 5월 10일.

38) 『朝日新聞』 1882년 5월 10일, 1882년 4월 26일 『朝日新聞』에 따르면 “조선의 貴紳 김옥균 외 3명은 속관 10명을 거느리고 아마 금명일 내 이곳으로 와서 조폐국과 오사카성지 기타 제조소 등을 일람하고 1, 2일 이곳에 체재한다”라고 하였다. 이 기사를 신빙할 수 있다면 원래 4월 26, 27일경에 고베에서 오사카로 오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부사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4월 8일 오사카에 도착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김옥균 일행은 일단 고베에서 모두 집결했음을 알 수 있다.

39) 『日本立憲政黨新聞』 1882년 8월 26일자에 임오군란 이후 도쿄에 있는 조선인으로 귀국을 원치 않는 9명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 권창식, 李宜果(이윤교) 등이 등장한다. 권창식은 뒤에 전보사 주사가 된 것을 보면 당시 도쿄에서 전신 기술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

40) 『朝日新聞』 1882년 3월 25일자는 17일발 부산의 조선 통신을 인용하여 오랫동안 부산항에 체재한 朝野覺知(朝野覺知, 탁정식의 일본 이름-필자)가 경성에 가지 않고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오랫동안 동경에 체류하면서 몰래 조선을 위해 도모하는 바가 있었던 승려 무불(朝野覺治로 칭하면서 일찍이 이동인과 함께 국사에 진력했던 자)은 이번이 千歲丸 편으로 귀국하여 바로 경성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경성이 평온하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당 거류지에 체류한다고 한다”(『京都新報』 1882년 3월 2일)라는 기사와 함께 보면 탁정식이 부산에서 김옥균을 기다린 것으로 추정된다.

41) 『東京日日新聞』 1882년 6월 6일.

丸) 편으로 6월 1일 아침 요코하마에 도착한 다음 바로 도쿄로 왔다.⁴³⁾ 나가사키에 도착한 지 70여 일 만에 도쿄에 나타난 것이다.

김옥균이 도쿄에 도착하자 6월 2일 외무성에서는 “우리나라 문물공업 개발의 정도 또는 시정의 방략 등을 시찰하기 위해 조선국 통훈대부 경연시독관 김옥균, 승정원 기주관 서광범 양인이 어제 1일 도착⁴⁴⁾”이라고 내각에 보고했다. 당시 김옥균은 중5품 홍문관 부교리에 불과했는데 정3품 당하관 품계인 통훈대부로 사칭하거나⁴⁵⁾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는⁴⁶⁾ 견해가 있다. 품계가 낮은 관리를 사신으로 보낼 때 품계를 올리는 관례가 있고⁴⁷⁾, 김옥균이 1882년 11월 2일 우부승지로 임명되면서 통훈대부의 다음 품계인 통정대부로 加資된⁴⁸⁾ 걸 보면 김옥균의 직전 품계를 통훈대부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다만 김옥균이 고종의 밀명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통훈대부를 내리지 못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김옥균 일행은 도쿄의 여러 행정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외무성에 요청하고, 외무성에서는 각 행정기관에 보여주어도 지장이 없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보여주도록 통지하였지만,⁴⁹⁾ 이들이 주로 시찰한 곳은 군사 관련 기관이었다. 6월 19·20일 이틀 동안 海軍兵學校를 시찰하고,⁵⁰⁾ 6월 29일엔 해군성의 局課와 육군성의 各局을 방문하였다.⁵¹⁾ 방일의 주목적이 일본군의 차병이었으므로 관계 기관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한편 교류에도 적극적이어서 김옥균, 서광범, 강위, 유길준 등은 6월 21일 오후 4시 築地 壽美屋에서 개최된 興亞會의 친목 연회에 참석한다. 이들은

42) 『朝日新聞』 1882년 5월 25일.

43) 『東京日日新聞』 1882년 6월 2일.

44) 「朝鮮国金玉均徐光範來着ノ件」 JACAR Ref. A01100221900.

45) Harold F. Cook, 앞의 책, p. 41.

46) 김종학, 앞의 책, 137쪽.

47) 응교(정4품) 김기수를 수신사로 보낼 때 통정대부로 특별히 加資했다(『승정원일기』 1876년 2월 22일, 23일).

48) 『승정원일기』 1882년 9월 22일.

49) 『時事新報』 1882년 6월 14일.

50) JACAR Ref. C11082264300.

51) 『東京日日新聞』·『時事新報』 1882년 6월 30일.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와타나베 고키(渡邊洪基), 청국 흠차대사 黎庶昌, 張滋昉 등 홍아회 회원 50여 명과 아시아의 기운을 확장할 방법을 논의하고, 시를 읊거나 글을 주고받았다.⁵²⁾

6월 12일 김옥균, 서광범, 탁정식은 파크스(H. S. Parkes) 주일 영국 공사의 초청으로 만찬을 했는데, 함께 참석한 통역 사토우 서기관이 “그들은 실로 호감이 가고 또 말을 잘하여 내가 지금까지 만난 일본인보다도 그 태도가 활달하였다”라고 인상을 평한 것이 흥미롭다. 6월 30일에 파크스의 초청에 대한 답례로 김옥균과 서광범은 파크스와 사토우를 그들의 숙소로 초청했다.⁵³⁾ 7월 6일에는 요코하마의 청국 영사와 함께 각국 영사관을 방문했다.⁵⁴⁾ 이전의 수신사나 조사시찰단과 달리 이들이 서양인과 적극적으로 만난 것은 단순한 교류 이상으로 개화당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군을 얻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3. 방일 목적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가사키에 도착한 김옥균은 동행한 우지중과 김동익을 도쿄로 보낸다.⁵⁵⁾ 『時事新報』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 “도쿄에 도착한 同國 신사 우정(25세) 김동익(35세) 양 씨는 육군수업 목적이라 하는데 도착 후 아직 1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양 씨 모두 머리를 깎고 양복”을 착용했다고 하였다. 또 “우정 씨는 조선 정부 통리기무아문 군무사의 참령관으로 호리모토(堀本) 대위⁵⁶⁾를 따라 양식 연병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 隔靴의 감을 면하

52) 『興亞會報告』 제30집, 1882년 7월 30일(『興亞會報告·亞細亞協會報告』, 不二出版, 1993년 復刻版, 245~246쪽). 『東京日日新聞』 1882년 6월 23일.

53) Ruxton, Ian ed., *A Diplomat in Japan Part II: The Diaries of Ernest Satow, 1870-1883*, Lulu Press, 2010, p. 487.

54) 『時事新報』 1882년 7월 8일.

55) “나가사키에 도착한 이후 우지중과 동행한 김동익은 동경으로 가고 나와 변수는 남아서 시독(김옥균)을 따랐다”(강위, 『續東游艸』, 『姜璋全集』 下, 亞細亞文化社, 1978).

56) 당시 호리모토 레조(堀本禮造)의 계급은 중위이다.

지 못해 일본 도항을 결심했으나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아 마침내 단연 관을 사직하고 동지 김동익 씨와 몰래 도래한 것으로 망명한 모습"이라 하였다.⁵⁷⁾

이 두 자료를 비교하면 우자중이 곧 우정이고 그는 군무사 참령관을 알 수 있다. 당시 군무사 참령관은 우범선이다.⁵⁸⁾ ‘자중’은 우범선의 字이고⁵⁹⁾ 우정은 우범선의 변명이다. 우정은 전설상에 하나라의 우 임금이 구주의 쇠 불이를 모아 주조하였다는 큰 솥을 의미하고 이름으로도 혼하여 이렇게 변명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이 우범선이 분명한 이상 이하에서는 우정을 우범선으로 바꾸어 표기한다. 김옥균이 우범선과 김동익⁶⁰⁾을 먼저 도쿄로 보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서광범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부사 공사가 4월 22일 도쿄를 출발, 고베에서 군함 반조함을 타고 부산과 인천을 경유해서 서울에 귀임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나부사 공사가 이들에게 보낸 아래의 편지를 보면, 도쿄에 도착한 이들은 먼저 육군수업 명목으로 하나부사 공사에게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머칠 전 편지에 대해 답장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내로 귀국의 서울을 향해 떠나려 합니다. 김옥균 공이 아직 오지 않아 두 분 선생의 취학을 정하지 못해 적잖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찍이 두 분 선생이 생각하는 바를 오자와 소장에게 부탁해두었습니다. 김옥균 공이 도쿄에 오길 기다려 정할 것입니다. 며칠 내로 저는 출발해야 하므로 고베에서 김옥균 공을 만나 자세히 얘기하려 합니다. 아울러 선생들의 신상에 대해서도 의논하여 정하겠습니다.⁶¹⁾

57) 『時事新報』 1882년 4월 21일.

58)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신사(1881) 5월 7일.

59) 일본 도치기현(栃木縣) 사노시(佐野市)향토박물관 소장의 스나가문고(須永文庫) 노트 No.0177 65 쪽에 우범선의 자가 ‘子貢’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다(原田環, 『乙未事件と禹範善』, 『論集 朝鮮近現代史-姜在彦先生古稀記念論文集』, 明石書店, 1996, 76쪽, 97쪽). 이 노트의 글씨는 흘려 썼고 ‘重’을 흘려 쓰면 ‘貢’과 유사하므로 ‘重’을 ‘貢’으로 오기하였거나 잘못 판독했을 수 있다. 우범선은 을미사변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단양 우씨 족보에 우범선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原田環, 앞 논문 76쪽 및 이종각, 『자객 고영근의 명성황후 복수기』, 동아일보사, 2009, 130쪽).

60) 김동익은 임오군란 이후에도 일본에 잔류했으나 사고가 있어 1882년 12월 15일 박영효 수신사가 귀국시켰다. 박영효, 『使和記略』, 『修信使記錄』(한국사료총서 제9집), 1971, 252쪽.

61) “日前賜書未暇回啓 僕以數日內 將發向貴京 金公玉均未來 兩位先生就學途未定關心不少小矣 然僕曾以兩位先生心中事托小澤少將 待金公玉均來京有所定也 而僕之發程在數日內 期見金公於神戸委

오자와 소장은 당시 육군성 少輔인 오자와 다케오(小澤武雄)를 말하고,⁶²⁾ 하나부사는 실제 오자와 소장에게 의뢰해두었으며 아래 편지에서 보듯이 오자와는 이들을 면담하려 하였다.

새로 건너온 한인 두 사람의 면회는 아무 때나 무방합니다. 육군성 또는 자택 중 어디라도 보내 주십시오. 아울러 통역 없이 필담을 요청하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그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모레 19일 오후 3시 반경에 찾아볼 생각입니다. 집에 계시는지를 여쭙니다. 만나 뵈었을 때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대략 이와 같습니다. 총총 돈수.

4월 17일

오자와 다케오

하나부사 공사님⁶³⁾

오자와 소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이들은 다시 하나부사에게 편지를 보내, “저희의 도해는 본래 하나의 기예를 닦아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나, 우러러 의지할 바는 오직 각하 한 사람이니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한 과목만 배워서는 안 되나 타고난 재주가 유한 하니 광산학·화학·병학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우며 가장 쉬운 것을 배우려 합니다”⁶⁴⁾라고 요청하였다. <그림 1> 상단의 통신일부인에 따르면 이 편지는 明治15(1882)년 4월 22일에 보낸 것이고 주소는 麴町1丁目 17번

曲晤談 併將先生等身上事議定也”(『花房義實關係文書』 407-11).

62) 「職員録・明治十五年三、七、十二月・官員録(陸軍省)改」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 A09054332800. 당시 오자와 소장은 陸軍大輔가 결원이라서 육군성의 제2인자였다.

63) “新渡之韓人兩名面會之義ハ、何時も差支無之。陸軍省又ハ自宅之内何方ニても御遣し相成度。併ニ通弁無之筆談を要し候ハ、前以御示教被下候度。其用意仕置可申候。明後十九日午下三時半頃參館仕度心得御坐候。御在邸ニ可有之哉相伺置度。拜眉之節萬指可申上候。要旨大略如此御坐候。勿々頓首。

四月 十七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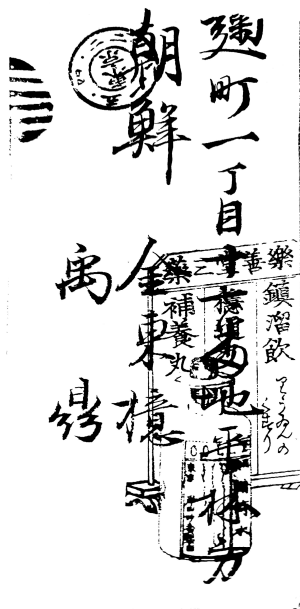
小澤武雄

花房公使殿”(『花房義實關係文書』 47-1).

64) “然生等之渡海 本欲修一技 以守自己之本分 而所仰恃者 惟閣下一人 幸指明路 學非一科稟才有限 礦化兵三者 何事爲易 請從最易者”(『花房義實關係文書』 303).

지 平林方⁶⁵⁾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다시 보낸 것을 보면, 이들의 목적이 단순히 군사학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부사를 만나 그들의 속내를 털어놓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부사는 4월 22일 도쿄 출발이 예정되었으나 지체되어 4월 26일 출발하게 된다. 이 사이에 우범선·김동억(이하 우·김으로 줄여 표기) 두 사람과 하나부사와 필담이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花房義質關係文書』 408번에 수록되어 있다. 여러 차례의 필담이 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일시가 적혀 있지 않고 일부는 누락되어 순서대로 필담을 온전히 복원할 수는 없으나 내용의 흐름을 따라 재구성해보기로 한다.



〈그림 1〉 1882년 4월 22일 우정·김동억이 하나부사 공사에게 보낸 서한의 곁봉

우·김: 이번에 각하께서 다시 서울에 가면 이전에 비해 더 개화될 것입니다.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김옥균이 언제 도쿄에 오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 민망합니다. 저희 사정을 말하면, 각하께서 멀리 떠난 뒤에는 사정을 호소할 사람이 없으니 이 역시 울적입니다. 저희가 귀국에 폐를 끼치고자 하는 건 학술과 기예뿐이 아니고 실은 품은 바가 있습니다. 각하의 속마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일이 매우 무망합니다.

하나부사: 배우는 일 이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5) 平林方은 히라바야시 집이란 뜻이고 이라바야시는 히라바야시 스에지로(平林末次郎)를 말한다. 김 규식의 아버지인 김용원(金鏞元, 1842-?)도 이 집에서 숙박한 걸 확인할 수 있다(『花房義質關係文書』 305-1).

우·김: 남이는 뜻을 가진 자이고 뜻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리고
학식도 알아 시사를 잘 알지 못하나 이를 논할 것이 있습니다. (중략)

하나부사: 저는 선생이 자임한 바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길 바랍니다. 삼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김: 저희의 출국은 임금의 명 없이 해외를 정처 없이 떠돌면서 국가를 부강
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략) 저희는 귀국과 폐방의 시사를 논하
고자 하는데 각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부사: 저는 며칠 내로 귀국의 서울로 갑니다. 양국의 시사에 관계된 것이라
면 어찌 듣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⁶⁶⁾

우·김 두 사람은 단지 육군수업을 위해 방일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일단 시사 문제를 논하자고 하나부사에게 제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김이 통역을 두지 않고 군이 의사 전달에 한계가 있는 필담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역을 통해 비밀이 새 나갈 우려가 있어서이다.

아래 필담을 보면 우·김은 하나부사와 시사 문제를 논하면서 문벌의 폐
단을 통박하고 조선의 士民이 '반란과 혁명[亂革]'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 것
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의 필담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부사: 문벌 정치는 폐습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의 적습입니다. (중
략) 그러므로 문벌이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폐습의 개혁은 두세 문벌의 유능
한 인사를 추대하고 수령으로 삼으면 민심을 진압하는 데 편리합니다. 지금
귀국 주상은 민 참판(민영악-필자)의 말을 믿고 그 의론을 많이 따릅니다.

66) “今番閣下又向弊京 比前頗有開化矣 荷賀荷賀 金玉均之來貴京未知何日指的 是以爲悶 以生之情事
言之 閣下遠駕後無人訴情亦爲情鬱 生之累于貴國非但學技 實有所懷矣 未知閣下照燭肺腑則事甚
無已

學事以外有何事 生未得知 先生心中事 幸賜明示如何

男兒有志者也 無志則非人 生年幼識淺 固不得時事 然蓋有論之 (중략)

僕未知先生所自任果如何 若幸賜細示 請謹聞之謹聞之

生之出國也 曾無君命 海外羈蹤流于無定期 以國家進于富強矣 (중략) 生有貴國與弊邦時事之論 而閣
下幸以許之否

僕以數日將發向貴京也 而若係兩國時事者 何有不聞之理乎”(『花房義質關係文書』 408-6)

과연 민 참관이 그 적임자입니다. 김옥균·서광범 체군과 윤응렬 체군이 내외에서 서로 도와 힘껏 잘 이끌고, 생도를 많이 파견하고 또 교사를 초청하면 기예와 학술이 진보할 기회가 있으며 언어 문자가 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강의 근원을 도모하면 개화할 방법이 없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이 말한 이른바 개화를 하려는 사람이 어찌 '난혁' 두 자를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이들은 누구입니까? 작년에 이제선이 있고 또 홍제학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난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이들은 개화인이 아닙니다. 진실로 개화인이라면 마땅히 개화 사업 중에서 개화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개화 사업은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없으며 점진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지금 귀국의 주상은 영명하여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선생들이 열심히 보국의 충복이 되어 세상의 형세를 살피고 그 학술을 함양하여 영명한 군주의 요청에 보답하면 귀국의 不開化는 진실로 근심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김: 우리 주상이 영명함은 진실로 국민이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집정자의 행위는 합하께서 모두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김옥균·서광범·어운중·조병식은 모두 개화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그 직임을 언지 못해 쓰이기 어렵습니다. (중략) 저희가 이렇게 온 건 우리 주상이 仁善으로 왕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략) 지금 폐방의 개명은 눈앞에 닥치고 있으나 그 적임자가 주상의 좌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민이 난혁을 생각하는 대상은 그 집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⁶⁷⁾

67) “門閥之政常多弊習 然數百年積習 (중략) 故門閥爲政之國欲革弊習 推二三門閥有爲之士爲首領 以伏民心爲便 今貴國主上信閱參判之言 多用其議 果然閱參判則其人也 金玉均徐光範諸君與尹雉烈諸君內外相助 勉善導之 多派生徒 又延教師 技藝學術有可進之機 語言文字有可通之期 如此而計富強之源 僕知不無可開之路也 先生之所爲爲開化之人 果何誰思亂革二字 果是何等人乎 昨有李載先 又有洪在鶴 是等皆思亂之人乎 然僕知非其開化人也 苟開化人宜求開化手段於開化事業中 也 開化事業也者 一朝非可搜取 當漸漸進取也 今貴國主上英名能容人言 加之以先生等 熱心報國之忠僕 自審宇內之形勢 自養其學術 以報英主所求 貴國之不開化素不足患也 先生以爲如何 我主上英明 誠爲國民之所知 而其執政者之所爲 非閣下之所能盡獨 金玉均徐光範魚允中趙秉式 皆開化之爲首者 而不得其職 故難以爲用矣 (중략) 生之輩作此行事 爲我主上仁善一匡王室之計耳 (중략) 今弊邦之開明在於朝夕 而其人不在于主上左右 故士民之思亂革 謂其執政者也”(『花房義質關係文書』 408-11)

하나부사가 조선의 오랜 문벌 정치 아래에서 개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 민영익을 중심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척되고 있다고 조선의 정세를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우·김은 현재의 집정자를 제거하고 문벌 정치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부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 1881년 이유원의 유배,⁶⁸⁾ 이재선의 사사, 홍재학이 참수를 거론하면서 “제가 외인으로 멀리서 보니 개화당이 힘을 얻어 세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집정자를 원망하는 말을 들으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화당이 힘을 얻어 세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백성에게 원한을 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⁶⁹⁾라고 반문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우·김은 “작년 이재선의 반역은 開鎖에 해당하지 않고 밖에서는 斥黨이라 칭합니다”⁷⁰⁾라고 하였다. 여기서 척당이란 일본을 배척해야 한다는 척론의 무리를 말한다.⁷¹⁾ 즉 개항과 쇄항의 대립이 아니라 일본을 배척하기 위해 이재선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당시 조선의 정세를 논의한 위와 같은 필담의 연장선상에서 우·김은 일본을 배척하려는 세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병력 3, 4천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파병을 요청한 필담은 보이지 않지만, 아래 필담을 보면 이들이 먼저 파병을 요청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68) 1881년 윤7월 8일 개화를 반대하는 유생 신섭(申櫻)의 상소에 대해 이유원이 변명으로 일관하자 삼사에서 이유원이 홍재학과 신섭 등을 토죄(討罪)하지 않았다고 탄핵하여 거제도도 유배 간 일을 말한다(『승정원일기』 1881년 윤7월 6일, 1881년 윤7월 14일, 윤7월 25일).

69) “僕外人遙見之 有開化黨得力攬勢之形 却聞此怨望執政者之言 僕未能解也 未知開化黨得力攬勢買怨於民者乎 請審示之”(『花房義實關係文書』 408-14). 이광린은 이 부분 중에서 “개화당이 정권을 잡고 친단함으로써 국민의 원망을 사고 있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개화당이 정부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다고(『개화당연구』, 일조각, 1973, 17~18쪽)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였다.

70) “去年李載先之反逆是不當於開鎖 外論稱以斥黨者也”

71) 인천개항 협상을 타결한 후 1881년 6월 30일 반조함 편으로 귀국한 하나부사 공사도 당시 조선의 인심이 흉흉하다 하면서 일본과 화친을 두터이 하려는 논자를 주화자, 일본과 교제를 친밀히 함을 반척하는 논자를 ‘척론자’로 구분하였다. 「花房弁理公使將來ノ方略等稟議ノ為メ一時歸朝」 JACAR Ref. A03023633800.

하나부사: 군대는 흥기입니다. 어찌 가벼이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귀국이 크게 배신한 일도 없고 또 반란이 있어 진압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가벼이 이웃 나라의 군대를 부르는 것은 귀국 안에서 인심의 소란뿐만 아니라 아마 타국의 비방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방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동란을 면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선생이 원래부터 알고 있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필시 어쩔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 이 3, 4천 병력의 파송을 요청합니까?⁷²⁾

이에 대해 우·김은 이 군대를 조선에서 부리는 것이 아니고 未開化國을 가르치는 데 쓰겠다고 대답하였다.⁷³⁾ 그러자 하나부사는 국왕이 특사를 파견하거나 동문사의 경리사가⁷⁴⁾ 공식문서로 요청하면 시행할 수 있으나 우·김과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고 국왕이 특사를 파견하거나 동문사 경리사가 공식문서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⁷⁵⁾ 하면서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우·김은 공식적 청병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서 3, 4천의 병력을 100일 동안 멀리 파견하는 비용은 3, 40만 금이라서 쉽게 실행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것은 왕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어 세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부사의 의견을 구하였다.⁷⁶⁾ 이에 대해 하나부사는 이웃 나라의 사신을 보호함은 조선 정부의 임무이고, 만약에 조선 정부에서 사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신이 호신용으로 약간의 군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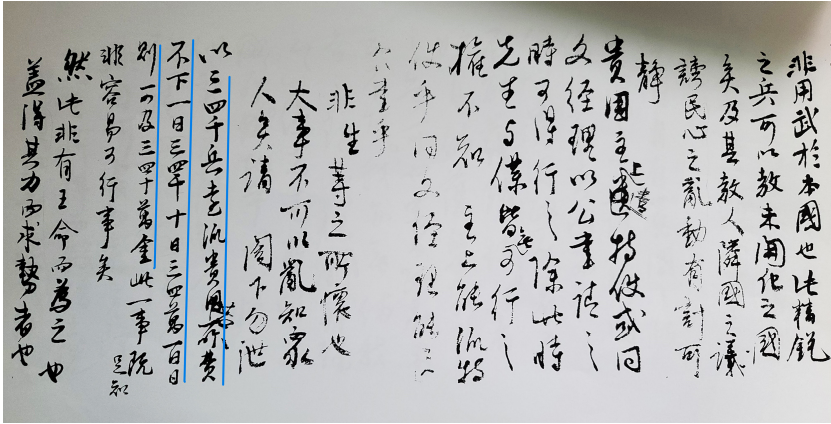
72) “兵者凶器也 豈容易可動乎 今貴國非有大背信之舉 又非有反亂難自理者 而輕招入隣國之兵 不特貴國中動亂人心 恐不免他國謗議 謗議或不省可也 奈動亂難免何 如此之事 先生素知之 不須僕之言 而今有此言 必有不得已者 請問何情事 果要送此三四千兵乎”(『花房義質關係文書』 408-8).

73) “非用武於本國也 此精銳之兵可以教未開化之國矣”

74) 1881년 음력 11월 19일 교린사를 동문사로 바꾸었으며 11월 21일에 이재면과 조영하가 경리사로 임명되었다(『승정원일기』 1881년 11월 19일, 11월 21일).

75) “貴國主上 遣特使 或同文經理以公書請之時 可得行之 除此時先生與僕皆無可行之權 不知主上能派特使乎 同文經理能送公書乎”

76) “非生等之所懷也 大事不可以亂知衆人矣 請閣下勿泄 以三四千兵遠派 貴國所費不下一日三四千 十日三四萬 百日則可及三四十萬金 此一事既足知非容易可行事矣 然此非有王命而爲之也 蓋得其力而求勢者也 假使有此說則閣下之高見如何”



〈그림 2〉 우범선·김동익이 일본군 3, 4천을 요청한 문서(『花房義質關係文書』 408-8)

갖출 수 있으나, 조선 정부가 아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도 군대를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응대했다.⁷⁷⁾ 이를 보면 우·김은 하나부사 공사에게 조선으로 귀임할 때 사신을 호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인 3, 4천의 대동을 요청한 것 같다.

이후 4월 24일에 진행된 필담⁷⁸⁾에선 借兵을 요청하는 구체적 이유가 제시되고 하나부사의 교섭 태도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에서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바뀐다. 아마 하나부사가 고베의 김옥균과 통신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하나부사는 이날 필담의 첫머리에 “김옥균 공이 21일 나가사키를 출발, 어제 고베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26일 이곳을 출발해서 고베에서 만나 고자 합니다⁷⁹⁾”라고 김옥균과 통신한 소식을 전했다. 이어서 “보낸 군대를 어디에 쓰고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⁸⁰⁾”라고 차병의 이유를 묻자 우·김

77) “貴國自有貴國之政 貴國之兵 護隣國使臣者 貴國政府之任也 貴國政府若云不能護隣使 使者始自備護身幾干之兵可也 貴政府未云不能 我亦無備我兵之理也”

78) 『花房義質關係文書』 408-7과 408-3은 내용상 이어진 문서인데, 전자에 김옥균이 21일에 나가사키를 출발 어제 고베에 도착했다는 언급이 있고 후자에 모레 장도에 오른다는 구절이 있다. 나가사키에서 고베까지는 뱃길로 통상 이틀이 걸리고, 하나부사가 26일 출발했으므로 이를 역산하면 필담 날짜를 24일로 특정할 수 있다.

79) “金玉均公 以廿一日發長崎 昨日達神戶 僕以廿六日將發此地 期相見于神戶”(『花房義質關係文書』 408-7).

80) “不知送兵之事 何所用何所爲也乎”

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군대를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폐방의 형세는 귀국의 개화 이전과 대체로 같습니다. 이웃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은 禮에 있어 불가하나 예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폐방의 인민으로 이를 논하면, 그 행군하는 위엄을 보면 그 마음은 반드시 통쾌하게 느낄 것입니다. 정부에서 공무를 빙자해서 사리를 꺾는 자는 죄를 물어 쫓아내고, 명령을 따르는 자는 함께 하고, 명령을 어기는 자는 참하고, 어진 이에게 직책을 주어 인민이 자기의 직업을 즐기게 만든 이후에야 부강의 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⁸¹⁾

아울러 “지금 우리 주상은 어질고 현명하나 소인배들이 仁明을 막고 가려 인민이 도탄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웃 나라가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지금 폐방의 은거한 장사와 영준한 무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갈면서 장차 그 정치를 바꾸어 선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⁸²⁾라고 하여 김옥균 등 개화당은 일본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차병의 목적을 확인한 하나부사는 고종이 믿을 만한 신하를 밀파하면 성사될지 모르겠다고⁸³⁾ 내비치자 우·김은 이 뜻을 고종에게 몰래 알리겠다고 하였다.⁸⁴⁾ 한편 우·김은 일본이 거절하면, 당시 한창 수교 교섭 중인 미국에 의뢰하겠다고 흥정을 붙이는 교섭술도 구사하였다. 이에 대해 하나부사는 다른 나라의 병력을 빌려 내정을 개혁하는 것은 훗날 해를 입게 되고 이런 일은 양국의 군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김옥균이 도쿄에 온 다음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81) “送兵之事非容易者 然今弊邦之事勢 與貴國開化前大同矣 招入隣兵 於禮不可 而適其禮則可也 以弊邦之人民論之 見其行兵之威嚴 則其心必多悟快 政府之憑公營私者 以罪黜之 從令者付之 違令者斬之 以賢進職 使人民樂其自業 而後富強之功可致也”

82) “今我主上仁且明 而羣小擁蔽(蔽)仁明 使人民陷于塗炭 而此隣國之所不知者也 今弊邦隱居壯士英俊之徒 揚腕磨齒 將革其政 一通善政之計者也”(『花房義質關係文書』 408-3).

83) “不知貴國君上能密派信臣成此事否”(『花房義質關係文書』 408-3).

84) “貴國若有此意 則僕等密達此意 從我主上心中然後亦好 雖無此事 招入貴兵少許 非殺戮者也 兵不血刃而有成事者也 自有行事之計故也 閣下深諒焉”

고키⁸⁵⁾는 나의 信友이고 또 조선의 벗입니다. 내가 출발한 다음에 선생들은 와타나베와 상의하고 김 공(김옥균)은 이와쿠라·이노우에 兩公과 상의하면 좋겠습니다”⁸⁶⁾라고 논의를 이어가기를 요청했다. 파병과 같은 중대사를 자신이 결정할 수 없으니 김옥균이 당시 일본 정부의 실력자인 이와쿠라 도모미 우대신과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과 협의를 거치고 조선의 국왕까지 동의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부사가 귀임 도중인 4월 말경 고베에서 김옥균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도쿄로 올라온 김옥균이 이와쿠라와 이노우에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882년 9월 11일 이노우에가 파크스 주일 영국 공사와 서기관 사토우를 만나 조선의 개화당이 보수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보수파 타도를 위해 3천 병력을 빌려달라고 했다고⁸⁷⁾ 언급한 걸 보면, 김옥균이 이와쿠라와 이노우에에게 분명히 차병을 요청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파크스는 이를 본국에 보고할 때 이노우에가 개화당이 권력을 유지하는 부담이 일본의 어깨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차병 요청을 거절했다고⁸⁸⁾ 했지만, 거절했다는 이노우에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만약에 거절했다면, 아래에서 보듯이 굳이 일행과 별도로 김옥균이 종자 1명을 데리고 비밀리에 일시 귀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노우에가 파크스를 만난 9월 11일은 임오군란 처리를 마무리한 시점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언급에 불과하다.

85) 당시 외무대서기관으로 홍아회의 이데올로그였다. 와타나베는 이등인이 암살된 이후인 1881년 5월 5일 하나부사에게 이등인이 늘 200명을 청병했다고 하면서 부산과 원산의 거주지 및 인천에 일본군 2소대 정도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다(『花房義質關係文書』 281-5 「對韓現今政略大要覺書」).

86) “宜待金公來京更議似爲可矣 而渡邊洪基我信友而又朝鮮之友也 僕發之後先生等與渡邊相話 金公與岩倉井上兩公商議可也”(『花房義質關係文書』 408-3).

87) “That the Korean advanced party had actually asked Jap. Govt. to lend them 3000 troops, to help them in overthrowing the conservatives and in freeing themselves from their yoke.”(Ruxton, Ian ed., 앞 책, p.491).

88) H. S. Parkes(1882.9.11) → G. L. G. Granville(1882.10.21.). “Corea 3,000 troops in order to support the King, but the government of Japan had declined to meet this request, because they felt that the burden of maintaining that party in power would thus fall upon their shoulders”(근대한국의교문서 편찬위원회 편, 『近代韓國 外交文書』 제7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95쪽).

7월 21일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清成) 외무대보는 하나부사 공사와 부산의 쇼에다 세츠 영사, 인천의 곤도 마스키 영사⁸⁹⁾에게 “한인 김옥균이 내밀한 불일로, 지금부터 이름을 바꾸어 종자 1명을 데리고 인천항에 잠시 밀행한 다음에 바로 이곳으로 돌아올 예정이라 한다. 따라서 귀관들도 가능한 한 김옥균이 귀국한 것을 숨기고 누설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이는 김씨가 종자에게 의뢰하여 알리는 것이다”⁹⁰⁾라는 비밀 서한을 발송했다. 지금까지 논의한 맥락에서 이 서한을 살펴보면, 김옥균이 단신으로 비밀리에 일시 귀국길에 오른 것은 일본군의 차병에 필요한 국왕 고종의 동의나 보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귀국길에 오른 김옥균은 뜻밖에도 군란 소식에 접하게 된다.

4. 임오군란과 김옥균

임오군란의 발발 소식, 특히 1882년 7월 23일의 일본공사관 습격 소식은 7월 30일 0시 30분 하나부사 공사의 타전으로 알려지게 된다. 7월 26일 남양만에서 영국 측량선 플라잉 피시(Flying Fish)호에 적극적으로 구조되어 나가사키에 도착한 하나부사 일행은 호위함과 호위병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전보를 접한 이노우에 외무경은 하나부사 공사의 상경을 명했으나, 다시 타전하여 시모노세키로 가도록 명령을 바꾸었다.⁹¹⁾ 시간을 절약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이 훈령에 따라 하나부사는 8월 1일 오후 시모노세키에 도착하게 된다.

당시 김옥균은 고베에서 시나가와마루(品川丸)를 타고 일시 귀국하려던

89) 부산 영사인 곤도는 인천개항에 대비해 1882년 4월 19일 인천 영사로 임명되었다. JACAR Ref. A01100237900.

90) “韓人金玉均義、内密ノ用事ニテ今便ニヨリ姓名ヲ改換シ、從者一名ヲ連レ仁川港ヘ向ケ暫時密行致シ、直又当地ヘ歸ル筈ニ有之候趣、就テハ貴官ニ於テモ成丈他ニ向イ同人歸國ノ事ヲ掩蔽シ、漏洩不致様御注意致被遣度。此段金氏ノ依頼ニヨリ拙者ヨリ申進候也”(『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京城說傳)第一卷』 JACAR Ref. B03030199100 1/47.

91) 『日本外交文書』 15, 215~216쪽.

참이었다. 이 배에는 9월로 예정된 인천개항에 따라 인천의 영사관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직공 그리고 순사 1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⁹²⁾ 공무를 위해 인천에 파견하는 시나가와마루에 김옥균이 탑승한 것은, 김옥균의 일시 귀국이 일본 정부의 협조와 지원 아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군란을 알린 하나부사의 전보를 접한 이노우에 외무경은 급히 고베에 타전하여 시나가와마루를 부산으로 돌려 부산 거류민의 경비에 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배가 떠난 뒤라서 이 훈령은 전해지지 않고 이를 확인한 이노우에는 다시 시모노세키에 타전했다.⁹³⁾ 김옥균이 탑승한 시나가와마루는 7월 31일 쯤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⁹⁴⁾ 그곳에서 8월 1일 오후에 도착한 하나부사 공사를 만나 군란의 상세한 소식을 듣게 된다. 하나부사 공사는 8월 2일 오전 4시 조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스기무라 후카시(杉村藩)를 반조함에 태워 부산에 파견하는데 이 군함에는 김옥균의 요청으로 탁정식과 오감(吳鑑)도 탑승하고 있었다.⁹⁵⁾

반조함을 타고 8월 2일 오후 4시 반 부산에 도착한 스기무라 후카시는 8월 3일 사면의 상황을 탐색하기 위해 동래부로 가서 동래부사 김선근을 면담한다. 동래부사는 스기무라에게 변란 상황을 설명한 다음 시모노세키에 있는 김옥균에게도 상세히 알렸으니 그 보고를 일람하면 좋겠다고 하였다.⁹⁶⁾ 스기무라가 오기 전에 이미 김옥균에게 변란 상황을 알렸다는 얘기이다. 동래부사가 누구를 통해 김옥균에게 알렸는지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김옥균이

92) 『東京日日新聞』 1882년 7월 31일, 『朝野新聞』 1882년 8월 1일.

93) 『東京日日新聞』 1882년 8월 3일.

94) 이전부터 조선 개항장의 일본인 보호 임무를 맡아 조선의 바다를 항해한 반조함은 원산에서 입수한 군란 소식을 전하기 위해 7월 30일 오전 6시 원산을 출발, 8월 1일 오전 7시 반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는데(JACAR Ref. A03023634700), 이때 시나가와마루가 정박한 걸 보았다고 하였다(『東京日日新聞』 1882년 8월 14일).

95) 군란을 피해 부산에 잠복한 민영익의 복심 朴永圭가 부산 영사관 소속 참모본부 정보장교 가이즈 미쓰오(海津三雄)에게 전한 상세한 군란 소식과 동래부사와 면담한 내용을 전한 8월 3일자 부산 영사 소에다 세츠(副田節)의 보고서에 “민영익의 심복 박영규는 군함 편으로 아사노(淺野)·오감과 함께 시모노세키로 도항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아사노는 아사노 가쿠지(朝野覺治)라는 변명을 사용한 탁정식을 말한다. 이를 보면 김옥균이 일시 귀국을 위해 데려간 종자는 탁정식인 것 같다. 그가 뒤에도 김옥균과 행동을 함께 한 점, 일본에 오래 머물러 일본어에 능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이 크다.

96) 『京城變狀探問書』 JACAR Ref. B03030178400 30/37.

방일 직전 부산의 朴義之 店舍에서 8일 동안 머문 점⁹⁷⁾, 김옥균 방일 때 동행하지 않은 인물로 시모노세키에서 귀국한 조선인은 박의지가 유일한 점을 고려하면 박의지를 통해 알린 것으로 보인다.⁹⁸⁾ 이를 보면 김옥균의 방일이 비밀 방문의 성격을 띠었지만 조선 정부의 유기적 협조 아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오군란의 발발은 일본 군대를 빌려 정변을 도모하려 한 김옥균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4월 26일 하나부사가 조선으로 귀임할 때 개화당이 요청한 병력을 대동했으면 일본공사관의 습격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군란에 따른 일본군의 조선 파병은 김옥균 등 개화당에 뜻하지 않은 기회로 다가왔다. 차병에 필요한 차관의 도입 없이 결과적으로 차병이 이루어진 형국이 된 것이다. 군대를 파견한 일본이 대원군 정권을 타도하고 개화당이 권력을 잡도록 해주면 그들이 군대를 빌리려 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군란 소식을 듣고 8월 7일 시모노세키에 합류한 서광범·우범선 등과 함께 김옥균 일행은 8월 10일 아침 시모노세키에서 귀국길에 오르는데⁹⁹⁾ 그 전날 김옥균·서광범 연명으로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清成) 외무대보에게 보낸 아래의 편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별할 때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구구한 저의 마음은 훗날 다시 도항해서 귀국의 서울에 이르러 기쁘게 웃고 술 마시며 표할 생각입니다.

97) “金侍讀抵此 已八日寓於艸梁店舍朴義之家”(姜璋, 『續東游冊』, 『姜璋全集』 하권, 아세아문화사, 1978).

98) 김옥균은 당시 시모노세키에서 조선과 일본의 연락을 중계한 외무성 대서기관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에게 부탁하여 8월 8일 박의지가 치토세마루 편으로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JACAR Ref. B03030178500 3/43). 박의지가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店舍’라는 표현으로 유추하면 그는 부산에서 일본인과 교역에 종사한 상인인 것 같다.

99) 김옥균, 서광범, 우정(우범선), 탁정식, 오감 등은 하나부사 공사, 다카시마 도모노스케(高島鞆之助) 육군 소장과 함께 메이지 마루(明治丸)를 타고 8월 10일에 인천을 향해 시모노세키를 출항하였다. 유혁로, 변수는 군함 아마기함(天城艦)을 타고 같은 날 부산을 향해 출항하였다(JACAR Ref. B03030178500 17/43~19/43). 부산에 머문 유혁로와 변수는 다시 치토세마루 편으로 시모노세키에 돌아와 8월 27일 육군성 고용선 샤료마루(社寮丸)를 타고 8월 30일 인천에 도착했다(『京都滋賀新報』 1882년 9월 11일).

이것은 결코 선생과 저 두 사람의 의기투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옥균은 겨우 바칸(馬關, 시모노세키)에 이르러 하나부사 공사가 낭패하여 귀국한 것을 보고 비로소 우리 서울에 큰 변고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변고는 응당 들으셨겠지만, 우리 서울의 조난은 귀국 공사가 겪은 것보다 더 심합니다. 통곡한 나머지 황송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일전에 외무경 대인을 뵈고 약속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점차 두서가 잡혔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부사 공사와 함께 인천으로 향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끝내 어떻게 될지는 감히 확실하게 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당 들으셨겠지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바쁜 일 제쳐두고 급히 몇 자를 적었습니다. 밝게 헤아리십시오.¹⁰⁰⁾

임오군란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으나 이노우에 외무경을 만나고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실마리가 잡혔다는 내용이다.¹⁰¹⁾ 임오군란 처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이노우에 외무경은 하나부사 공사에게 훈령을 부여하고 설명하기 위해 8월 7일 시모노세키에 도착한다. 김옥균을 만난 이노우에는 대원군 정권을 타도하고 개화당에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실마리가 잡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청군보다 일본군을 먼저 조선에 보내 내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퇴출하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군의 대규모 파병 소식을 접하고 청 정부가 일본과 적대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한 이노우에는 대원군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대원군과도 협상하도록 곧바로 방침을 바꾸었다. 아래 자료는 이노우에가 하나부사에게 내린

100) “吉田大輔大人臺鑒

臨別 懇懇盛詢如何可忘 區區私衷 自以謂他日再航到貴京 歡笑盃酒 決不在先生及我兩人契心而已 玉均纔至馬關 見花房公使良貝反棹 始知敝京有大變故 其故正應關聆 而敝京所遭有浮於貴公使所經歷 痛哭之餘惶愧自切 日者獲拜外務卿大人 握手傾談數刻 現前可行之事 稍稍有頭緒 方擬同花房公使仍向仁津 然究竟之如何不敢保告 又應有尊聆 而一言布陳亦不堪闕 撥忙荒泐數行 只祈犀照 壬午六月二十六日(8월 9일) 金玉均徐光範拜啓”(『吉田家文書』 3540). 琴秉洞, 『金玉均と日本: その滯日の軌跡』(綠蔭書房, 1991, 70~71쪽)의 탈초나 이를 전제한 『吉田清成關係文書』 3(思文閣出版, 2000, 301쪽)의 탈초는 오류가 적지 않아 의미 파악에 방해가 된다.

101) 김종학은 “現前可行之事 稍稍有頭緒” 부분을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으니(이제선 옥사를 가리킴) 조금씩 실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김종학 앞의 책, 145쪽)라고 맥락에서 벗어나게 해석했는데 이는 아마 ‘現前可行之事’를 ‘現前可引之事’로 잘못 판독하여 이제선 옥사를 무리하게 끌어 들인 것 같다.

8월 13일 자 비밀 훈령인데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모노세키를) 떠날 때 鈞玉金(金玉均-필자)과 담화 중에 대원군을 퇴출하는 논의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주장해둔 것은 귀하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 중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語勢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원군의 밀서 등을 입수한 다음은, 다소 기분 나쁜 것이 있더라도, 구태여 대원군과 담판할 수 없다고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점쳐질 때는, 몰래 대원군이 만족할만한 처분을 일본 정부에 줄 충분한 의향을 내밀히 탐색한 다음 적절히 종결할 수 있으면 이 또한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청의 간섭도 날로 심해지고 그 속뜻은 헤아릴 수 없어도 아마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悔悟의 뜻을 표하도록 內助하는 정책이라 여겨집니다.¹⁰²⁾

청군의 대규모 파병과 일본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개화당 정권 수립의 희망이 사라지자 김옥균은 대원군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일본행은 잠행이 아니라 국왕의 내명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사족·서얼·중인·상인(常人)의 구별 없이 不次擢用할 것을 건의하였다.¹⁰³⁾ 신분에 구애되지 않는 능력 본위의 인재 등용은 김옥균의 일관된 지론이었다.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김옥균이 원하는 바를 대원군이 대신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102) “別時鈞玉金と談話中、大院君を退くるの論點は隨分強く説破致し置候は、老臺御承知通りと奉存候。併此語中彼等を厲ます爲めの語勢も多く有之、其邊は御熱味被下度候。尤大院君の密書等手に入候上は、少々いやみ御吹込有之度候得共、強て大院とは談判不得と言を強勢にして却て害あると知する時は、内々同君満足の處分を日本政府と與ふる充分なる意を内々御探り被示候上、都合克局を結ぶ得れば、是亦上策と奉存候。清國の關涉も日を逐て深く相成、其意中不被計候得共、多分朝鮮政府をして日本政府之悔悟の意を表さしむるの内助する策と奉察候”(『花房義實關係文書』 14-4).

103) 『朝野新聞』 1882년 9월 26일, 李光麟, 『開化派와 開化思想 研究』, 一潮閣, 1989, 70쪽. 김옥균은 8월 19, 20일 무렵 몰래 서울에 들어가 흥영식을 면담하고 인천으로 돌아왔다거나 대원군에게 글을 보냈다는 소문이 났으므로(小室信介, 『朝鮮記行』 4, 『日本立憲政黨新聞』 1882년 9월 6일), 아마 이때 흥영식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5. 맺음말

국왕 고종의 내명을 받은 김옥균은 1882년 봄 서광범, 강위, 우지중, 김동익 등 개화당의 멤버를 대동하고 일본을 비밀리에 방문한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김옥균 일행은 우지중과 김동익을 도쿄로 먼저 보내 하나부사 공사와 교섭하도록 했다. 우지중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우정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가 을미사변에 관련된 우범선임을 이 논문에서 최초로 규명했다.

도쿄에 도착한 우범선과 김동익은 하나부사 공사와 필담을 통해 일본군 3, 4천 명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일본 각지의 시찰을 마치고 도쿄에 도착한 김옥균도 당시 일본의 실력자인 이와쿠라 도모미 우대신과 이노우에 외무경에도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미한 세력의 개화당이 일본군의 위세로 반일 보수파를 조정에서 쫓아내고 개화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개화 정책을 급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황당하게 보이는 이 차병 요청은 곧이어 발발한 임오군란의 일본공사관 습격을 생각하면 전혀 시의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고종의 친서와 같은 조선 정부의 보증을 요청하였다. 김옥균이 단신으로 비밀리에 일시 귀국길에 오른 것은 이 때문이었다.

뜻밖에도 귀국 도중에 임오군란이 발발하고 김옥균은 시모노세키에서 상세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임오군란으로 일본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자 김옥균의 차병 요청은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듯했다. 실제 김옥균 등 개화당이 시모노세키에 집결했을 때 이노우에 외무경은 일본군을 파견하여 대원군 정권을 타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곧바로 대규모의 청군이 파견되자 일본 정부는 애초의 정책을 표면하여 일본군의 위세를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김옥균의 의도는 무산되었다.

■ 참고문헌

1. 사료

『姜瑋全集』 上 下, 아세아문화사, 1978.
 『近代韓國 外交文書』 제7권,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琴乘洞文庫 소재 김옥균 관계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吉田家文書』 3540, 일본국회 헌정자료실 소장.
 『吉田清成關係文書』 3, 思文閣出版, 2000.
 『金玉均』, 葛生玄暉, 民友社, 1916.
 『金玉均傳』 上卷, 古筠記念會, 慶應出版社, 1944.
 『金玉均全集』, 아세아문화사, 1979.
 『東亞先覺志士記傳』 하권, 葛生能久著, 黑龍會編, 黑龍會出版部, 1936; 原書房, 1966년 복각본.
 『修信使記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제9집, 1971.
 『승정원일기』.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新聞集成明治編年史編纂委員會 編, 1936.
 『日本外交文書』.
 『朝鮮新報』, 한국고서동우회 편, 영인본.
 『추안급국안』 87, 서종태 역주, 흐름, 2014.
 萩原延壽, 『離日: 遠い崖—ア-ネスト・サトウ日記抄』, 朝日新聞社, 2001.
 『花房義質關係文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마이크로필름.
 『興亞會·亞細亞協會報告』, 不二出版社, 1993.
 Ian RUXTON ed., *A Diplomat in Japan Part II: The Diaries of Ernest Satow, 1870-1883*, Lulu Press Inc. 2009.

2. 저서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2007.
 琴乘洞, 『金玉均と日本 : その滞日の軌跡』, 綠蔭書房, 1991.
 김종학,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2017.
 閔泰瓌, 『甲申政變과 金玉均』, 국제문화협회, 1947.
 박은숙,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단아』, 너머북스, 201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김옥균』(1964; 역사비평사 복간, 1990)
 山辺健太郎, 『日本の韓國併合』, 太平出版社, 1966.
 李光麟, 『開化黨研究』, 일조각, 1973.
 _____, 『開化派와 開化思想 研究』, 一潮閣, 1989.
 이종각, 『자객 고영근의 명성황후 복수기』, 동아일보사, 2009.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下, 朝鮮總督府, 1940.
 朱昇澤, 『한문학과 근대문학』, 태학사, 2009.
 角田房子, 『わが祖國-禹博士の運命の種』, 新潮社, 1990(오상현 옮김, 『우장춘 박사 일대기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교문사, 1992).

Harold F. Cook, *Korea's 1884 Incident-Its Background and Kim Ok-kyun's Elusive Dream*, Royal Asiatic Society, 1972.

3. 논문

- 김광옥, 「근대 일본의 協同商會와 朝鮮貿易」, 『동아시아역사연구』 제7·8집, 2000.
- 김흥수, 「개화당의 비밀을 밝혀줄 와타나베 고키(渡邊洪基) 편지」, 『역사의窓』 44호, 2017.
- _____, 「임오군란 시기 유길준·윤치호 연명 상서」, 『개념과 소통』 21, 2018.
- _____, 「박규수의 대일수교론과 개화사상」, 『현재 박규수 연구』, 학자원, 2018.
- 原田環, 「乙未事件と禹範善」, 『論集 朝鮮近現代史-姜在彦先生古稀記念論文集』, 明石書店, 1996.
- 이현주, 「1880년대 초반 姜瑋의 日·淸 여행과 조선 정부의 개화정책」, 『漢文學報』 43, 2020.
- 裴基勳, 『秋琴 姜瑋의 海外紀行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Kim, Ok-gyun's Initial Visit to Japan

Kim Heung Soo*

In the spring of 1882, Kim Ok-gyun secretly traveled to Japan with members of the Gae-hwa(Enlightenment) Party, including Seo Kwang-beom, Kang Wee, Woo Bum-sun, and Kim Dong-eok. Until now, the purpose of the trip to Japan was shrouded in mystery. Based on reports in Japanese newspapers at the time, it was vaguely assumed that it was to introduce a loan from Japan.

“The Hanabusa Yoshimoto Document(花房義質關係文書)” provides a clear indication of the purpose of Kim's visit to Japan. After arriving in Nagasaki, Kim sent Woo Bum-seon and Kim Dong-eok to Tokyo to have a conversation in handwriting with Hanabusa Yoshimoto. A request was made to Hanabusa to lend three or four thousand Japanese soldiers. The intention was to seize power with the might of the Japanese military power and implement a policy of enlightenment. In response to such proposal from Kim, the Japanese government required a guarantee from the Korean government, so Kim Ok-gyun had to secretly travel back home temporarily.

Unexpectedly, the Imo Rebellion broke out on his way home, and Kim received the news in Shimonoseki.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dispatched troops to fight in the Imo Rebellion, Kim Ok-gyun's request for a loaner army seemed like a natural fit. However, when the massive Qing troops were dispatched shortly thereafter, Kim's intention to seize power through the strength of the Japanese army thwarted.

* Hongik Univ. / Associate Prof.

Key words: Kim Ok-gyun, Seo Kwang-beom, Kang Wee, Woo Bum-seon, Hanabusa
Yoshimoto, Yoshida Kiyonari